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를 읽고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라는 글에는 제목처럼 두부가게 아저씨와 어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아이인 주인공은 두부가게 아저씨가 돈을 거슬러줄 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 때문에 천 원 대신 오천 원을 거슬러준 것을 알고 떨 듯이 기뻐한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오천 원이 자기의 돈이 된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도덕적으로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던 주인공은 그 돈을 들고 어머니께 가서 자랑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어머니는 주인공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 두부가게로 향하고,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주인공을 두부가게 아저씨에게 사과하도록 한다. 이 장면은 내가 읽은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다. 어머니의 차분하고 분명한 대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려서 그렇다며 아이를 감싸거나 한 번쯤이야 하며 눈감아줬다면 어땠을까? 아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아들이 잘못 받아온 오천 원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한다면 어땠을까? 아마 주인공은 앞으로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발견한다면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아이를 혼내거나 때렸다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그냥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두부가게 아저씨를 찾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직접 알게 하고, 직접 주인공이 아저씨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아이가 내 행동이 왜 잘못됐으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위에 천 원짜리 세 장이 놓여있었다. 지금이야 삼천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삼천 원이면 문방구에서 많은 간식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탐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에 있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돈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때의 어린 나는 삼천 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놀러가는 척 밖으로 나와 문방구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먹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설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엄마한테 말할 거 없니?”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는 경회를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경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말할 거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머니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쓸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책상 위에 지갑이 있든, 떨어진 돈이 있든 절대 손대지 않도록 자랐다.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 글의 주인공처럼 어머니의 올바른 교육으로 내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일’을 막은 것이다.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 독후감을 쓰며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시하는 바이다.

이 글의 주인공은 자라서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청탁이나 보답과 같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거부해야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된다. 이 글의 주인공은 예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거절하게 된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한 번쯤이야 생각하며 눈감아줬다면 소방공무원이 된 주인공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좀 받으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자란 주인공은 무수한 유혹을 이겨내고 ‘청렴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자신의 청렴한 생활을 남들과 나눌 정도로 훌륭하게 자라났다.

나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에 나갈 때, 혹은 민원인을 상대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글의 주인공처럼 민원인들이 감사해서 주시는 음료수 등을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민원인의 고맙다며 진심으로 권하는 음료수 하나도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동료직원들을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고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해 보니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청렴한 생활의 방해

꾼이며, 내가 작은 것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점점 더 청렴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은 음료수 하나’가 아니라, 작든 크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부하는 행동 하나가, 거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청렴한 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입장에서 이 글을 되짚어보고 반성해보자면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청렴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며 많은 청렴 방해꾼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다며 돈을 쥐어주는 일, 과일바구니를 건네는 일 등등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단호하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 할 것이다. 민원인들의 마음이야 감사히 받겠지만, 그 이상은 과자 하나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되었다. 청렴 방해꾼과 마주하게 된다면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이 글의 주인공처럼 청렴한 사람이 되어 나의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다. 이 글의 주인공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청렴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질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다.